『中國學』第84輯 (2023.09.30.)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4.84.5
pp.083-111. ISSN : 1229-9618

『說文解字』540部首의 形相·義相 系聯 考察(2)
-「卷二·上/下」15小~44冊의 30개 部首를 대상으로

김태완*

【목 차】

1. 연구 방법
1) 이 연구에 사용된 용어와 분석 방법
2)「『說文解字』540部首의 形相·義相 系聯 考察(1)」의 결과 요약
2.『說文解字』「卷二·上/下」15小~44冊의 30개 部首의 系聯 분석
3. 小結

【초록】
『說文解字』는 한자의 체계적인 자전으로서 최초라 할 수 있는데, 특히 部首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특정 글자의 검색을 쉽게 하였다는 점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음양오행에 근거하여 설정한 540개라는 적지 않은 부수의 개수는 검색에 있어서 뜻밖의 불편함을 야기하였다. 이때 허신은 부수의 순서를 부수의 형체의 연결인 形相과 의미에 연결인 義相을 이용하여 배열하였다. 이 논문은 이 계련의 形相과 義相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說文』「卷一」의 14개 부수를 대상으로 '系聯'을 고찰하였으며, 이번 논문은『說文』「卷二·上/下」15小~44冊의 30개 부수의 '系聯'을 고찰하였다.

【키워드】『說文解字』, 卷二·上/下, 部首, 據形系聯, 共理相貫, 形相次, 義相次

* 김태완.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lomloy@jnu.ac.kr)

1. 연구 방법

필자는 졸저 「『說文解字』 540部首의 形相·義相 系聯 考察(1) - 「卷一」 14部首를 대상으로-」[1]에서 『說文解字』(이하 『설문』으로 간칭) 「卷一」에 실려있는 一, 二, 示, 三, 王, 玉, 玨, 气, 士, 丨, 屮, 艸, 蓐, 茻의 14개 부수를 대상으로 許愼이 부수의 배열과 순서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용한 系聯法을 실제로 적용하여 그 前後 관계를 분석하였다.

1) 이 연구에 사용된 용어와 분석 방법

(1) 이 연구에 사용된 용어 - 形相次와 義相次

이 분석을 위해 사용한 용어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淸代의 단옥재가 허신의 계련을 분석하면서 사용한 形相次와 義相次를 기준으로 허신의 부수를 분석하고 도표화하였다.

形相이란 形相次의 줄임말로서 부수의 상호 관계에 대한 용어로 인식하고 있는 '系聯'을 언급한 『說文·後敍』[2]의 "雜而不越, 據形系聯"에 해당하며, 義相 역시 義相次의 줄임말로서 "同牽條屬, 共理相貫"에 해당한다. 사실, '系聯'이라는 용어는 명칭만 있을 뿐, 허신은 『설문』에서 그 정의나 설명 등을 하지 않았다. 다만, 『說文』의 第十五·下에 '敍曰'로 시작하는 이른바 「後敍」에 보인다.[3] 여기에서 언급한 '據形系聯'과 '共理相貫'에 대해 단옥재는 이를 形相次와 義相次로 분석하였다.

---

1) 『中國學』 第82輯 (2023.03) 발표.

2) 『說文解字』 원문에는 「後敍」라는 제목은 없다. '敍曰'로 본문이 시작하기에 「後敍」라고 필자가 편의상 붙인 제목이다. 段玉裁가 "≪後漢書 · 儒林傳≫作「≪說文解字≫十四篇」, 捨敍而言也。許沖及≪隨志≫·≪唐志≫皆云十五卷, 合≪敍≫而言也."(『후한서·유림전』에서는 『설문해자』14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문을 버리고 말한 것이다. 허충이 『수지』·『당지』가 모두 15권이라고 한 것은 서문을 합하여 말한 것이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면, 서문은 존재하지만 별도의 卷으로 합산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3) 敍曰 : 此十四篇, 五百四十部, 九千三百五十三文, 重一千一百六十三, 解說凡十三萬三千四百四十一字. 其建首也, 立一爲耑(端). 方以類聚, 物以群分. 同牽條屬, 共理相貫. 雜而不越, 據形系聯, 引而申之, 以究萬原. 畢終於亥, 知化窮冥.『說文解字·第15·後敍』(이 14편은 540부수, 9353문, 중문 1763자, 해설자는 모두 133,441자로 이루어져 있다. 부수를 세움에 있어서 '一'을 처음으로 삼는다. 비슷한 종류들을 모아서 여러 무리로 나누었다. 한 조목에서 나온 것은 함께 묶고, 같은 이치이면 서로 엮는다. 서로 섞이게 하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며, 형체에 근거하여 순서가 이어지게 한다. 그것을 끌어당기고 늘려서, 온갖 근원을 다 파헤쳤다. '亥'에서 끝을 맺으니, 변화를 알고 그윽한 것에 통할 수 있다.)

단옥재는 “據形系聯”에 대해 “系者, 懸也. 聯者, 連也.”라 주석하였다.[4] 즉, 系聯은 懸連으로서 어떤 물건을 높이 걸어 두어 잘 드러나게 한다는 ‘懸’과 사람들이 그 물건을 찾기에 편리하도록 연속적으로 배열한다는 ‘連’의 의미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懸’은 形相次이고 ‘連’은 義相次라고 할 수 있다.[5] 그의 “雖或有以義相次者, 但十之一而已.”(비록 (形相이 아닌) ‘義相’으로 그 다음을 잇는 것도 있으나 10분의 1일 따름이다.)라는 설명에 의하면 形相次가 주된 원칙이고 義相次는 보조적인 원칙임을 위의 설명으로 알 수 있다. 形相次는 곧 『설문』「後敍」의 “雜而不越, 據形系聯”에 해당하며, 義相次는 “同牽條屬, 共理相貫”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系 = 懸 = 形相次 (主要的 원칙) = “雜而不越, 據形系聯”
聯 = 連 = 義相次 (附隨的 원칙) = “同牽條屬, 共理相貫”

(2) 이 연구에 사용된 분석 방법 - 順次 및 逆順直列式과 遠隔竝列式

이 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허신이 사용한 계련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직렬식과 병렬식이다.

첫 번째 방식은 直列式이다. 도식화하면 마치 A1→A2→A3→A4→A5처럼 직전의 부수를 이어서 그 形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계련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반드시 A1→A2→A3→A4→A5의 A5가 직전의 부수인 A4을 순차적으로 계련하지 않고 A1→A2→A3→A4↠A2처럼 한 단계를 넘어 몇 단계 앞에 떨어져 있는 부수를 계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그 形相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직렬식으로 분류하였다. 이 방식을 필자는 직렬식이라 명명하였다. 단, 이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순차직렬식’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

4) 系者, 懸也. 聯者, 連也. 謂五百四十部次第, 大略以形相連次. 使人記憶易檢尋. 如八篇起人部, 則全篇三十六部皆由人而及之是也. 雖或有以義相次者, 但十之一而已. 部首以形爲次, 以六書始於象形也. 每部中以義爲次, 以六書歸於轉注也. 『說文解字·第15·後敍』』(‘系’라는 것은 매달아 늘어진다(懸)는 뜻이다. ‘聯’이라는 것은 잇닿아 연결되다(連)는 뜻이다. 也. 540부수의 순서를 말하자면 대락 ‘形相’으로 연이어 그 다음을 잇는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어 검색을 쉽게 한다. 예를 들어 8편의 人部로 시작하는 것은 全篇 36부수가 모두 ‘人’으로부터 이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비록 (形相이 아닌) ‘義相’으로 그 다음을 잇는 것도 있으나 10분의 1일 따름이다. 부수는 ‘形’으로써 순서를 삼으며, 六書는 상형으로 시작한다. 매 부마다 ‘義’를 그 다음으로 하고, 육서는 전주로 끝난다.)

5) 系聯에 대해 이미 허신이 형태에 근거한다고(‘據形’系聯) 언급했음에도 ‘連’을 굳이 의미로의 계련, 즉 義相次라 풀이한 이유는 위 각주 5)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단옥재의 “系者, 懸也. 聯者, 連也.”에 근거한 까닭이다.

이 순차직렬식 이외에 허신의 계련에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 직렬식이긴 하나 직전 혹은 직전 이상의 앞에 배열된 부수를 계련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부수의 다음에 배열되는 부수를 계련하는 방식이다. 이는 허신의 "雜而不越, 據形系聯"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據形'하되 반드시 선행의 부수가 아닌 후행의 부수를 계련해도 形相으로서 '雜而不越'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義相으로서도 "同牽條屬, 共理相貫"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540개의 부수를 계련하는 도중 허신은 가급적 선행의 부수를 잇고자 하였음에도 그렇지 못할 경우 후행의 부수를 앞으로 당김으로써 부수의 전체 스토리를 소위 '聯想'하게 만들고자 하는 일종의 특수한 방식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A1→A2→A3→A4→A5의 방식이 아닌 A1→A2→A3←A4→A5의 경우처럼 A3가 A2가 아닌 A4를 계련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 논문에서는 '逆順직렬식'이라 명명하고 부호는 ←를 사용한다.

두 번째 방식은 竝列式이다. 도식화하면 마치 <table><tr><td rowspan="4">A</td><td>A1</td></tr><tr><td>A2</td></tr><tr><td>A3</td></tr><tr><td>A4</td></tr></table>처럼 하나의 부수가 다른 여러 부수에 공통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즉, 직렬식처럼 순차식이 아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직전의 부수와 형체상 연관이 있지만 후속되는 다른 여러 부수들에게 공통으로 계련되는 구조다. 그러므로 병렬식은 직전의 부수와는 직렬식이지만, 다시 독자적으로 여러 부수들에게 계련될 때는 병렬식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병렬식은 순차식과 달리 직전의 부수가 아닌 그 이전의 부수와 계련된다. 이 방식을 필자는 병렬식이라 명명하였다.[6] 단, 이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원격병렬식'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순차직렬식은 이른바 據'形'系聯에 해당하며, 병렬식은 據'義'系聯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설문』「後敍』의 "方以類聚, 物以群分."이라 한 '類聚'의 개념과도 통한다. 이 논문의 부수를 분석한 아래 표에서 직렬식으로 계련되는 경우는 화살표 →로 표시한다. 원격병렬식으로 계련되는 경우는 화살표 ↠로 표시하였다. 아울러 계련되는 횟수도 함께 표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근거하여 부수를 形相과 義相 두 가지로 우선 분류하고 다시 形相과 義相 내부에서 벌어지는 순차직렬식과 원격병렬식 두 가지로 세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 결과 形相次와 義相次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540개의 부수를 계련하고 있는

6) 이 직렬식과 병렬식의 방식은 繆九花의 「许慎『说文解字』部首排列系联方式新探」(『南昌大学学报』, 2010.)의 1-2쪽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직렬식'과 '병렬식'이라는 용어는 필자의 명명이며, 繆九花의 논문에서 분류한 방식과 필자의 방식은 다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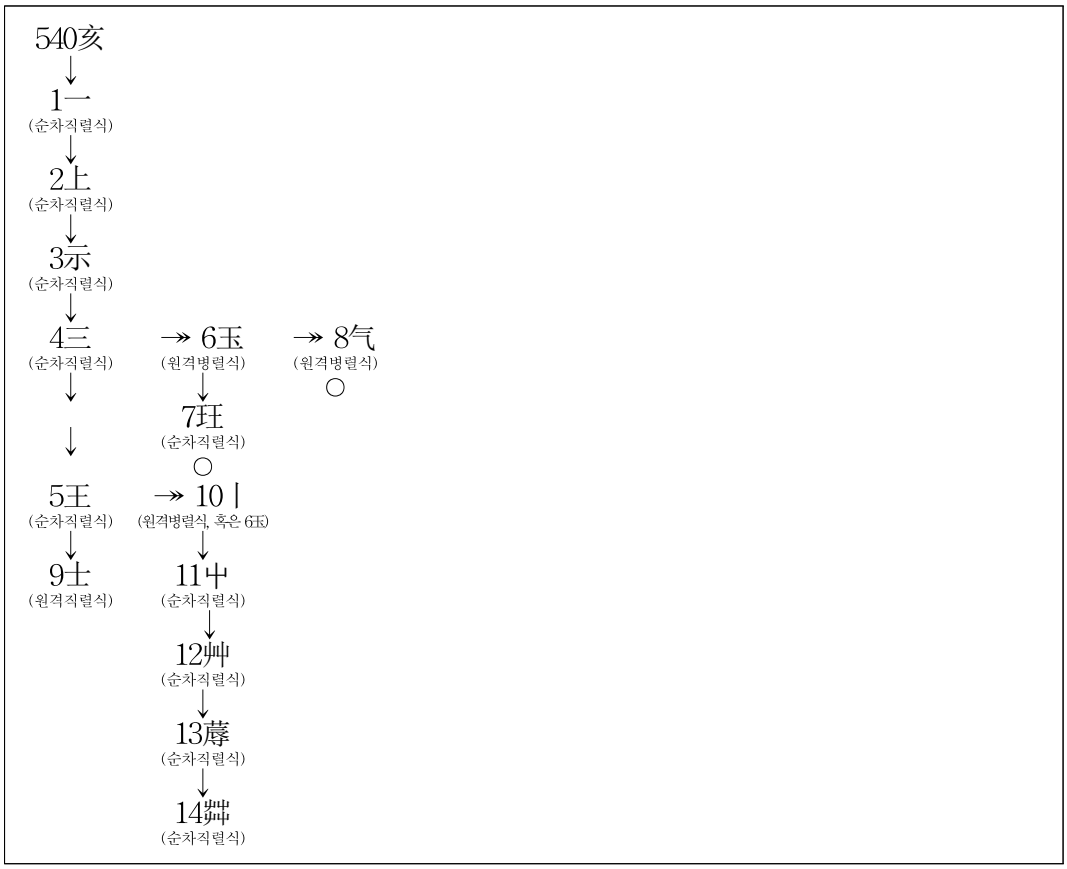
지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2) 「『說文解字』540部首의 形相·義相 系聯 考察(1)」의 결과 요약

『中國學』第82輯(2023.03)에 발표한 「『說文解字』540部首의 形相·義相 系聯 考察(1)」에서는 『설문』「권1」의 14部首를 대상으로 形相과 義相을 기준으로 도표화하고, 다시 直列과 竝列로 系聯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단 82집의 표와는 배열 방식을 다음과 같이 직렬과 병렬이 쉽게 표현되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어떤 부수가 계속적으로 직렬 혹은 병렬이 되는지를 아래와 같이 더욱 명확하게 제시한다.

(1) 形相의 계련 방식과 순서

『설문』「권1」의 1一부터 14㐭까지 14개 부수를 대상으로 한 形相의 계련 방식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순차직렬식 부수 : 1一→ 2上→ 3示→ 4三→ 5王 및 6玉→7玨 그리고 10丨→ 11屮→ 12艸→ 13蓐→ 14茻

· 원격직렬식 부수 : 5王→ 9士

· 원격병렬식 부수 : 4三→ 6玉→ 8气 및 5王→ 10丨

· 직렬과 병렬 공통 부수 : 4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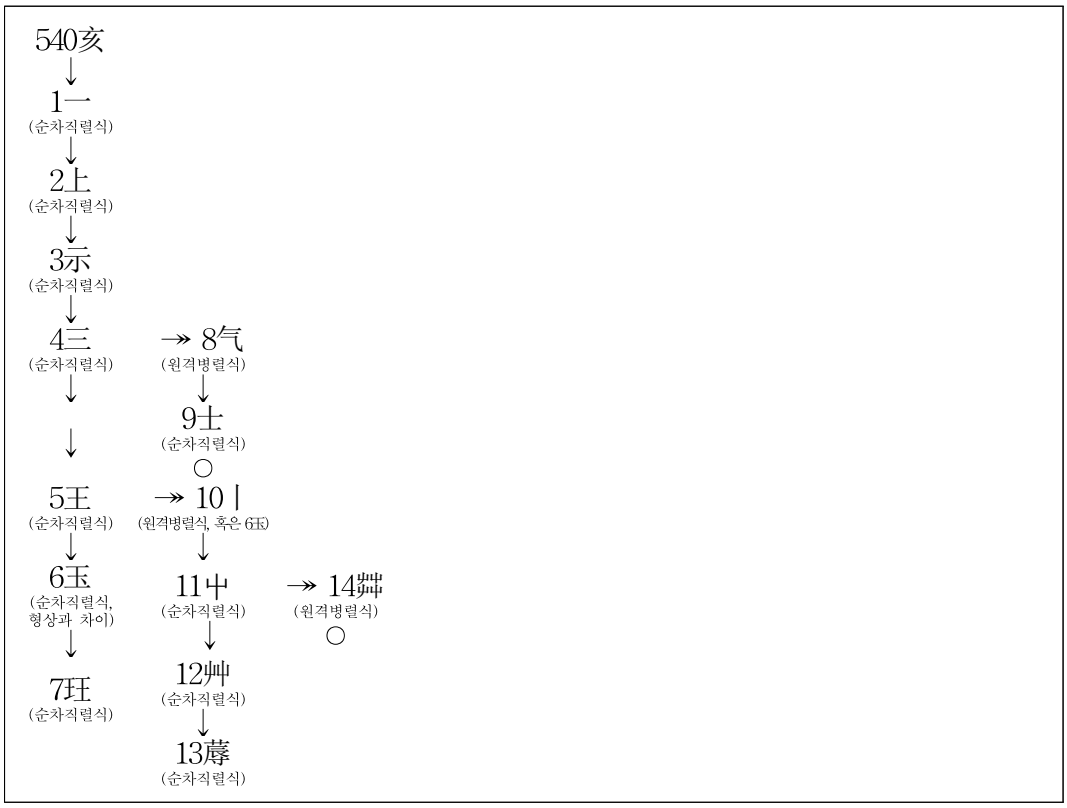
특이한 사항은 4三이 5王으로 계련될 때는 직렬식이었다가 다시 8气로 계련되는 경우이다. 즉,

4三	5王
	8气

이다.

(2) 義相의 계련 방식과 순서

『설문』「권1」의 1一부터 14茻까지 14개 부수를 대상으로 한 義相의 계련 방식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義相의 계련 방식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순차직렬식 부수 : 1一→ 2上→ 3示→ 4三→ 5王→ 6玉→ 7玨 및 8气→ 9士→ 10丨→ 11屮→ 12艸→ 13蓐→ 14茻
· 形相과의 차이 : 형상에서는 6玉이 5王을 계련하지 않고 初回부수로 출현하였으나, 의상에서는 5王→ 6玉과 같이 계련하고 있다.
· 원격병렬식 부수 : 4三→ 8气
· 形相과의 차이 : 형상에서는 4三→ 6玉→ 8气처럼 중간에 6玉이 있었으나, 의상에서는 8气가 원격으로 4三과 병렬식 계련하고 있다.
· 직렬과 병렬 공통 부수 : 4三

2.『說文解字』「卷二·上/下」15小~44冊의 30개 部首의 系聯 분석

이하『설문』「권2」의 다음 30개 부수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15小 16八 17釆 18半 19牛 20犛 21告 22口 23凵 24叩 25哭 26走 27止 28歹 29步 30此 31正 32是 33辵 34彳 35廴 36延 37行 38齒 39牙 40足 41疋 42品 43龠 44冊 (30개)[7]

部首順序	部首 (篆書) (楷書)	形相 / 義相	系聯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15	小 {소} 小	形相	10丨	○『段注』: 仍蒙丨而次之. (거듭 丨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10丨 · 근거 : 『단주』의 "蒙丨" 및 『설문』의 "从八, 丨見而分之."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 10丨의 계련 횟수 : 3회(10丨→11屮→15小)	小 少 尐 (文3)	物之微也. 从八, 丨見而分之. 凡…. (小는 물건이 작다는 뜻이다. [나눈다는 뜻의] 八로 구성되어 있다. [위아래로 관통함을 그린 丨으로써 그것이 나누어졌음을 드러내 보였다. …)
		義相	10丨	· 『설문』에서 이 小는 물건을 나눈다는 의미의 丨으로 인해 그 물건이 나누어져 작아졌다는 의미이다. · 이 小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회의라 할 수 있다. 소속자 少와 尐의 풀이도 각각 "少, 不多也. 从小丿聲."과 "尐, 少也. 从小乀聲."으로서 모두 小를 기본 구조로 갖는 从小X聲의 小를 형부로 하는 형성으로 풀이하고 있다. ○계련부수 : 10丨		

7) 괄호 표기 원칙 : 부수는 대괄호 [] 안에 표기하였으며,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수의 음에 대해서는 중괄호 {} 안에 한글음을 표기하였다. 한글 번역문은 소괄호 () 안에 표기하였으며, 그 속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시 대괄호 []를 사용하였다.

部首순서	部首 (篆書) (楷書)	形相 義相	系聯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16	丷 {팔} 八	形相	15小	○『段注』: 蒙小从八, 而次之以八. 余居八部, 而所屬有㑹. 蓋(蓋의 本字)古本此下有余部. (小가 八로 구성되어 있기에 그 다음으로 八을 잇는다. 余는 八部에 있으며 㑹도 소속되어 있다. 대개 고본에는 이 아래에 余部가 있다.)[8] ○계련부수 : 15小 · 근거 : 『단주』의 "蒙小从八" 및 『설문』의 "象分別相背之形."은 결국 八은 '작게 나누어진다'[小]는 의미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八 分 尒 曾 尚 … (文12)	別也. 象分別相背之形. 凡…. (八은 나눈다는 뜻이다. 나뉘어 서로 등진 모양을 상형하였다. ….)
		義相	15小	· 허신은 이 八에 대한 해설자로 '別'을 제시하였으나, 『설문』 본문에서 '別'字에 대한 풀이는 없다. 다만, '別'은 '八'의 雙聲疊韻字임을 『段注』를 통해 알 수 있다. · 別의 부수는 丹(과)로서 "剔人肉置其骨也. 象形. 頭隆骨也. 凡….(丹는 사람의 살을 도려내고 뼈만 남겨둔 것이다. 상형이다. 머리의 튀어나온 뼈다. ….)"라고 『설문』에서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6八이 '別'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뼈임을 알 수 있다. · '나누다'라는 의미로서 16八은 위 15小와 의미상 계련하고 있다. ○계련부수 : 15小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17	米 {변} 釆	形相	16八	○『段注』: 釆者, 八之類. 皆象分別之形也. 故次於此. (釆는 八자의 부류이다. 모두 分別의 모양을 상형하였다. 그러므로 이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16八 · 근거 : 『단주』의 "分別之形"과 『설문』의 "辨別也."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 16八의 계련 횟수 : 2회(16八→17釆)	釆 番 寀 悉 釋 (文5)	辨別也. 象獸指爪分別也. …. 讀若辨. (釆은 분별한다는 뜻이다. 짐승의 발가락이 구분되는 것을 상형하였다. …. 辨{변}과 같이 발음한다.)
		義相	16八	· 역시 위 16八의 "別也"와 유사하게 17釆 또한 "辨別也."로 풀이하고 있다. 즉, 의미상 이어지고 있다. ○계련부수 : 16八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18	半 {반} 半	形相	16八	○『段注』: 蒙八而次之. (八을 이어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16八 · 근거 : 『단주』의 "蒙八" 및 『설문』의 "从八从牛." 즉, 『설문』에서 '八'을 의미부로 따르고 있다는 설명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 16八의 계련 횟수 : 3회(16八→17釆→18半)	半 胖 叛 (文3)	物中分也. 从八从牛. 牛為物大, 可以分也. 凡…. (半은 사물의 가운데를 나눈다는 뜻이다. 八과 牛로 구성되어 있다. 소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갈라 나눌 수 있다. ….)
		義相	16八 17釆	· 『설문』에서 "从八从牛."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의미상 위의 16八과 17釆을 잇고 있다. ○계련부수 : 16八과 17釆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19	牜 {우}	形相	18半	○『段注』: 蒙半从八牛而次之. (半의 八과 牛로 구성된 부분"从八牛"을 이어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 · "从八牛"는 半에 대한 『설문해자』의 풀이이다. 그렇기	牛 牡 犅 特 牝 … (文45)	事也. 理也. 像角頭三封尾之形. 凡…. (牛는 일하다, 이

部首順서	部首 (篆書) (楷書)	形相 義相	系聯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牛			때문에 위 문장의 "半从八牛"는 결국 半을 의미하지만, 半과 牛의 소전 자형은 𦍒과 𠂆로서 𠂆는 𦍒의 아래부분 즉 牛를 취한 것이다. ○계련부수 : 18半 ・근거 : 『단주』의 "蒙半"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18半의 계련 횟수 : 2회(18半→19牛)		치를 드러내다라는 뜻이다. (두 개의) 뿔과 머리의 이 세 부분과 어깨 봉우리와 꼬리의 모양을 상형하였다. ….)
		義相	18半	・18半의 『설문』에서 "半从八牛"이라 풀이하였으니 이 19牛는 위 18半을 의미상 잇고 있다. ○계련부수 : 18半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0	𢍏 {리} 犛	形相	19牛	○『段注』: 蒙牛而次之. (牛를 이어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19牛 ・근거 : 『단주』의 "蒙牛"와 『설문』의 "从牛𢍏聲."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19牛의 계련 횟수 : 2회(19牛→20犛)	犛 氂 斄 (文3)	西南夷長髦牛也. 从牛𢍏聲. 凡…. (犛는 서남 이민족 지역의 털이 긴 소다. 牛의 형체와 𢍏의 발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19牛	・『설문』에서 "从牛𢍏聲(牛의 형체와 𢍏의 발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 하였으니, 20犛는 19牛에 대한 의미상 연속적인 풀이이다. ○계련부수 : 19牛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1	𠳋 {고} 告	形相	19牛	○『段注』: 蒙牛而次之. (牛를 이어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19牛 ・근거 : 『단주』의 "蒙牛"와 『설문』의 "从口从牛."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19牛의 계련 횟수 : 3회(19牛→20犛→21告)	告 嚳 (文2)	牛觸人, 角箸橫木, 所以告人也. 从口从牛. 易曰, 僮牛之告. 凡告之屬皆从告. 凡…. (告는 소의 뿔이 사람에게 닿을까 염려하여 소의 뿔에 가로로 나무를 걸어서 사람에게 [조심하도록 위험을] 알린다는 뜻이다. 口와 牛로 구성되어 있다. 『易』에서 "어린 소가 알려준다"고 하였다. ….)
		義相	19牛	・『설문』에서 "从牛𢍏聲.(牛의 형체와 𢍏의 발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 하였다. 이 또한 19牛와 의미상 이어지고 있다. ○계련부수 : 19牛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22	𠙵 {구} 口	形相	21告	○『段注』: 蒙𠳋从口而次之. (𠳋를 이어 받아 口로 구성되어서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1告 ・근거 : 『단주』의 "蒙𠳋" ・21告의 아랫부분인 口를 계련하고 있다. ●사실, '나누다, 분리하다'로서의 부수의 역할은 15小부터 시작하여 21告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이 22口부터 새로운 부수의 시작, 즉 '입(口)의 역할이 시작된다. (24皿 부르짖을 훤까지 이어짐) 義相도 마찬가지	口 噭 噣 喙 吻 … (文180)	人所以言食也. 象形. 凡…. (口는 말을 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의 기관 즉 '입'을 말한다. 상형이다. ….)

部首순서	部首 (篆書) (楷書)	形相 義相	系聯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이다. 단, 42[品]은 齒牙와 관련이 있긴 하나 '입(口)'과 무관하지 않다. (부호 ●는 계련을 분석하는 도중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른, 필자만의 주관적인 견해를 피력할 때 사용하였다. 이하 26走에서도 동일함)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1告의 계련 횟수 : 初回		
		義相	21告	・21告가 "从口从牛"의 구조로 '口'를 내포하고 있으니, '告'의 의미가 '입'으로 위험을 알린다는 의미로서 '입'의 '말한다'는 역할과 동시에 '음식을 먹는' 역할로서 의상이다. ○계련부수 : 21告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3	凵 {감} 凵	形相	22口	○『段注』: 張口也. 故次於此. (입을 벌린 모양이다. 그러므로 이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2口 ・근거 : 『단주』의 "張口"와 『설문』의 "張口也." ・22口의 소전체 凵를 계련하고 있다.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2口의 계련 횟수 : 2회(22口→23凵)	凵 (文1)	張口也. 象形. 凡…. (凵은 입을 벌린 것이다. 상형이다. ….)
		義相	22口	・『설문』에서 "張口也."라 하였으니, 곧 22口의 변형된 모습이자, 입의 '벌린 모양'으로서 의상이다. 이 23凵의 소속 글자는 凵 이외에 없다. 즉 부수글자(제부수)이니, 아마 허신은 입의 여러 역할과 모양을 강조하고자 이 23凵을 부수로 설정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계련부수 : 22口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4	吅 {훤} 吅	形相	22口	○『段注』: 蒙口而次之. (口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2口 ・근거 : 『단주』의 "蒙口"와 『설문』의 "从二口." ・이 또한 22口의 소전체 凵를 계련하고 있다.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22口의 계련 횟수 : 3회(22口→23凵→24吅)	吅 嚴 單 哭 嚴 咢 咢 (文6)	驚嘑也. 从二口. 凡…. 讀若讙. (吅은 '놀라 부르짖다(驚嘑)'라는 뜻이다. 두 개의 口로 구성되어 있다. …. 讙(환)처럼 발음한다.)
		義相	22口	・『설문』에서 "从二口"라 하였으니, 역시 입의 여러 역할로써 22口를 잇고 있다. ○계련부수 : 22口 ○계련방식 : 23凵이 아닌 22口를 잇고 있으니, 원격병렬식이다.		
25	哭 {곡} 哭	形相	24吅	○『段注』: 蒙吅而次之. (吅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4吅 ・근거 : 『단주』의 "蒙吅"과 『설문』의 "从吅."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4吅의 계련 횟수 : 初回	哭 喪 (文2)	哀聲也. 从吅, 獄省聲. 凡…. (哭은 슬피 우는 소리라는 뜻이다. 吅으로 구성되었고, 獄의 생략형이 발음부분이다. ….)
		義相	24吅	・『설문』 24吅의 해설에서 "从二口."라 하였으며, 다시 25哭의 해설에서 "从吅"이라 하였기 때문에 25哭은 義相으로서 24哭을 잇고 있다. 즉, 놀라 부르는 吅의 예		

部首順서	部首 (篆書) (楷書)	形相 義相	系聯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로서 슬피 우는 소리('哀聲也.')를 들고 있다. ○계련부수 : 24皿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6	走 {주} 走	形相	27止	○『段注』: 有形不相蒙者, 此是也. (형체가 있으나 서로 이어받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것이다.) ·『설문』 부수표에 대한 『단주』에서 처음 보이는 풀이이다. ·이 논문에서는 27止와 形相이면서 동시에 順방향이 아닌 逆방향으로 계련한다고 분석한다. 단옥재의 "有形不相蒙者"는 이 역순의 계련을 언급한 것이라 추측한다. ●결국, 25哭으로서 부수로서 '입(口)'의 역할은 끝나고 이 26走부터는 새로운 부수의 시작, 즉 사람의 '다리(止)'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義相도 마찬가지이다. ○계련부수 : 27止 ·근거 : 『단주』의 27止에 대한 "蒙走"와 『설문』의 26走에 대한 "从夭止." ·이 26走의 선행인 25哭은 皿(부르짖을 훤)과 犬(개 견)의 결합으로서, 인간이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너무나 슬픈 나머지 짐승(犬)처럼 슬피 울부짖다(皿)는 뜻을 담고 있는 형체의 글자이다. ·반면 이 26走는 갑골문에서 윗부분이 팔을 흔드는 사람의 모습이고 아랫부분은 발(止)을 그려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상형한 구조이다. 소전체 단계에서 윗부분이 머리가 꺾인 사람을 그린 夭(어릴 요)로 변했고, 예서 단계에서 필획의 변화에 따라 조자의 의도가 상실되어 土(흙 토)로 변해 지금의 모양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26走는 직전의 25哭과 형체상 및 의미상 연관이 없다. 그렇기에 26走의 계련 부수를 25哭으로 분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27止는 『설문』의 "그러므로 止가 足의 의미(故以止為足)"라는 분석처럼 '발(足)'과 형체상 의미상 모두 연관이 있다. ·결국 역순의 직렬식이다. ·이처럼 先行의 부수를 계련하는 순차직렬식이 아닌 後行의 부수를 계련하는 특별한 경우가 보인다. 이를 이 논문에서는 逆順직렬식이라 분류한다. 이 표현은 순차직렬식(逆順) 혹은 역순계련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으나, 분석의 일관화를 위해 '逆順직렬식'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계련방식 : 逆順직렬식 ·26走←27止 ·이하 止는 27止, 28癶, 29步, 30此, 31正, 32是, 33辵, 36辵, 38齒, 40足, 41疋까지 단독 혹은 다른 계련부수와 함께 계련의 역할을 하고 있다. ·27止의 계련 횟수 : 初回(逆順)	走 趨 赴 趣 超 … (文85)	趨也. 从夭止. 夭者, 屈也. 凡…. (走는 빨리 달린다는 뜻이다. 夭와 止로 구성되어 있다. 夭는 구부러진다는 뜻이다. ….)

部首順서	部首 (篆書) (楷書)	形相 義相	系聯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義相	27止	・다음의 27止에 대한 『설문』의 설명에서 "故以止為足. (그러므로 止는 足의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단옥재는 "故以止爲足. 此引伸假借之法. 凡以韋爲皮韋, 以朋爲朋黨, 以來爲行來之來, 以西爲東西之西, 以子爲人之偁皆是也. 以止爲人足之偁與以子爲人之偁正同. 許書無趾字. 止卽趾也."(이러한 방법은 인신하고 가차하는 방법이다. '韋'를 '皮韋'[가죽]으로, '朋'을 '朋黨'[무리]으로, '來'를 '行來'[오고 가다]의 '來'로, '西'를 '東西'[방위]의 '西'로, '子'를 사람을 칭하는 것으로 사용한 예 등이 모두 그러하다. 특히 '止'를 사람의 발[足]로 삼은 것은 '子'를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삼은 것과 같다. 허신의 『설문』에는 '趾'(발)자가 없는데, '止'가 곧 '趾'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止'는 '足'으로서 '下基'[기초]가 된다는 의미 이외에 '足'[발의 여러 동작]의 의미까지 인신과 가차의 방법으로 그 의미를 겸하고 있다는 풀이다. ・결국 '止'의 일반적인 풀이인 '멈추다, 그치다'가 아닌 '足'의 동작인 '가다, 달리다'의 의미까지 義相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설문』에서도 "趨也. 从夭止."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계련부수 : 27止 ○계련방식 : 逆順직렬식		
27	止 {지} 止	形相	26走	○『段注』: 蒙走从止而次之. (走가 止로 구성된 것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6走 ・근거 : 『단주』의 "蒙走"와 『설문』의 "象艸木出有址, 故以止為足."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7止의 계련 횟수 : 2회(26走←27止)	止 埀 堂 峙 岠 … (文14)	下基也. 象艸木出有址, 故以止為足. 凡…. (止는 아래쪽에 있는 터라는 뜻이다. 초목이 땅을 뚫고 나올 때 그 터가 있는 모습을 상형하였다. 그러므로 止가 足의 의미이다. ….)
		義相	26走	・위 26走는 기본 의미가 '趨'(달리다)이다. 이 27止는 앞 26走에서 설명한 것처럼 『설문』에서 "故以止為足."이라 하였으니, '足'의 동작과 관련된 의미로서 위의 26走와 義相으로서 계련하고 있다. ○계련부수 : 26走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8	癶 {발} 癶	形相	27止	○『段注』: 蒙止凵二文而次之. (止와 凵 두 글자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7止 ・근거 : 『단주』의 "蒙止凵二文"과 『설문』의 "从止凵." ・이 28癶은 止와 이 글자가 좌우로 뒤집어진 凵로 이루어져 있으니, 계련부수는 止이다.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7止의 계련 횟수 : 3회(26走←27止→28癶)	癶 登 癹 (文3)	足剌癶也. 从止凵. 凡…. 讀若撥. (癶은 두 발이 엇갈려 있는 것이다. 止와 凵(달)로 구성되었다.)
		義相	27止	・27止는 곧 36走[趨也.]와 27止[足]의 의미를 의상으로 잇고 있다. ・凵에 대해 『설문』의 止部에서 "蹈也. 从反止. 讀若		

部首 순서	部首 (篆書) (楷書)	形相 義相	系聯 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撻."(밟다, 걷다라는 의미이다. 止를 뒤집은 구조이다. 撻{달}처럼 읽는다)라 풀이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蹈의 다른 풀이는 다음과 같다. "蹈, 踐也."(『설문』), "蹈, 履也."(『廣雅』), "足之蹈之."(『孟子』) 등이다. ○계련부수 : 27止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9	步 {보} 步	形相	27止	○『段注』: 亦蒙止𠃊二文而次之. (또한 止와 𠃊 두 글자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7止 · 근거 : 『단주』의 "亦蒙止𠃊二文"과 『설문』의 "从止𠃊相背."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 27止의 계련 횟수 : 4회(26走←27止→28癶→29步)	步 歲 (文2)	行也. 从止𠃊相背. 凡…. (步는 걸아가다는 뜻이다. 止와 𠃊(달)이 서로 등지고 있는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28癶	· 위 28癶이 止와 𠃊가 좌우로 결합한 '足刺(어그러질 날)'의 의미라면 이 29步는 止와 𠃊가 相背의 상하 구조로 결합한 의미이다. ○계련부수 : 28癶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0	此 {차} 此	形相	27止	○『段注』: 蒙止而次之. (止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7止 · 근거 : 『단주』의 "蒙止"와 『설문』의 "止也. 从止从匕."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 27止의 계련 횟수 : 5회(26走←27止→28癶→29步→30此)	此 呰 柴 (文3)	止也. 从止从匕. 匕, 相比次也. 凡…. (此는 멈춘다는 뜻이다. 止와 匕로 구성되어 있다. 匕는 서로 나란히 순서를 정한다는 뜻이다. ….)
		義相	29步	· 『설문』에서 "从止从匕. 匕, 相比次也."라 하였으니, 이 30此는 29步의 의미를 이어서 순서를 정한다는 의미로 이어지고 있다. ○계련부수 : 29步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1	正 {정} 正	形相	27止	○『段注』: 蒙止而次之. (止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7止 · 근거 : 『단주』의 蒙止"와 『설문』의 "从一. 一以止."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 27止의 계련 횟수 : 6회(26走←27止→28癶→29步→30此→31正)	正 乏 (文2)	是也. 从一. 一以止. 凡…. 𠀀古文正. 从二. 二, 古文上字. 𠀀古文正, 从一足. 足亦止也. (正은 옳다는 뜻이다. 一로 구성되어 있다. 一(가로획)이 止(발) 위에 놓인 구조이다. … 𠀀은 正의 고문인데, 二(上)으로 구성되어 있다. 二(上)은 上의 고문이다. 𠀀도 正의 고문이다. 一과 足
		義相	27止	· 『설문』에서 "从一. 一以止."라 한 것은 이 31正이 1一과 발의 의미인 27止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28走의 足의 의미까지 겸한다고 볼 수 있다. · 결국 31正은 27止의 의미로 계련하고 있다. ○계련부수 : 27止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部首순서	部首 (篆書) (楷書)	形相 義相	系聯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으로 구성되어 있다. 足 또한 止의 뜻이다.)
32	是 {시} 是	形相	31正	○『段注』: 蒙正而次之. (正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사실 31正은 27止를 계련하고 있으나, 단옥재는 32是의 계련부수를 正으로 분석하였다. ○계련부수 : 31正 ・근거 : 『단주』의 "蒙正"과 『설문』의 "从日正."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1正의 계련 횟수 : 初回	是 韙 䟦 (文3)	直也. 从日正. 凡…. (是는 바르다는 뜻이다. 日과 正으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31正	・『段注』에서 "直也. 直部曰. 正見也. 从日正. 十目燭隱則曰直. 以日爲正則曰是. 从日正會意."('直'은 『설문』의 直部에서 '正見'[바르게 본다]이라 하였다. '日'과 '正'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 개의 눈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直'이다. 해로 올바름의 기준을 삼는 것이 '是'이다. '日'과 '正'으로 구성된 회의자이다.)라고 하였다. ・즉, '바르게 본다'는 의미의 '正'과 '어두운 곳을 밝힌다'라는 '日'의 의미이다. ・결국 32正은 27止의 구조가 있기는 하나, 전혀 27止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계련부수 : 31正 ○계련방식 : (31正의 의미를 잇는) 순차직렬식		
33	辵 {착} 辵	形相	27止	○『段注』: 仍蒙止而次之. (거듭 止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仍蒙X而次之."의 '仍'은 계련부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다가 특정 부수의 앞에서 그 이어짐이 끊어진 후 특정 부수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계련부수 : 27止 ・근거 : 『단주』의 "蒙止"와 『설문』의 "从彳从止."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27止의 계련 횟수 : 7회(26走←27止→28彳→29步→30此→31正→33辵)	辵 迹 邍 逵 邁 … (文118)	乍行乍止也. 从彳从止. 凡…. (辵은 잠시 가다가 잠시 멈추는 것이다. 彳과 止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27止	・27止의 『설문』 해석은 "故以止為足."이고, 31正은 "从一. 一以止."이며, 32是는 "从日正."이다. 즉, 27止→31正→32是의 순서로 27止를 매개로 계속 의미가 이어지고 있다. 다시 이 27지는 40足의 "从口止."까지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다. ○계련부수 : 27止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34	彳 {척} 彳	形相	33辵	○『段注』: 蒙辵从彳而次之. (辵이 彳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33辵 ・근거 : 『단주』의 "蒙辵从彳"과 『설문』의 소전 형태	彳 德 徑 復 徐 … (文37)	小步也. 象人脛三屬相連也. 凡…. (彳은 작은 걸음으로 걷는다라는 뜻이다. 허벅지와

部首順서	部首 (篆書) (楷書)	形相 義相	系聯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34彳[彳]과 33辵[辶]은 형체상 [彳]을 공통 요소로 하고 있다. 그래서 34彳이 33辵을 계련하고 있다.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3辵의 계련 횟수 : 初回		무릎과 종아리의 셋이 연결된 사람의 다리 모양을 상형하였다. ….)
		義相	33辵	·『설문』의 "小步也."[작은 걸음]은 33辵의 "乍行乍止"[작은 걸음]을 의미상 잇고 있다. ○계련부수 : 33辵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5	{인} 廴	形相	34彳	○『段注』: 蒙彳而次之. (彳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34彳 ·근거 : 『단주』의 "蒙彳"과 『설문』의 "从彳引之."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4彳의 계련 횟수 : 初回	廴 延 延 建 (文4)	長行也. 从彳引之. 凡…. (廴은 멀리 가다는 뜻이다. 彳{척}을 길게 늘어트린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34彳	·『설문』에서 "長行也."라 하였으니, 이는 34彳의 "小步也."[작은 걸음]을 의미상 잇고 있다. ○계련부수 : 34彳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6	{천} 延	形相	35廴	○『段注』: 蒙廴而次之. 兼蒙止. (廴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동시에 止를 잇는다.) ○계련부수 : 35廴 ·근거 : 『단주』의 "蒙廴"과 『설문』의 "从廴从止."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5廴의 계련 횟수 : 初回	延 延 (文2)	安步延延也. 从廴从止. 凡…. (延은 천천히 느긋하게 걷다는 뜻이다. 廴{인}과 止{지}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35廴	·『설문』의 풀이는 "安步"[편안한 걸음]으로서 위 35廴의 "長行也."[긴 걸음]을 의미상 잇고 있다. ○계련부수 : 35廴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7	{행} 行	形相	34彳	○『段注』: 蒙彳部彳亍二文而次之. (彳部의 彳과 [彳部의 소속자인] 亍 두 文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설문』의 "从彳从亍."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亍(讀若畜)의 『설문』 해석은 "步止也. 从反彳."(걸음을 멈추는 것이다. 彳의 뒤집힌 모양으로 구성되었다.)이다. 『段注』는 彳과 行의 일부분이면서 彳部의 소속자인 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는데, 부수의 계련자에서 부수자가 아닌 특정 부수의 소속자를 계련자로 분석한 독특한 경우이다. ·하지만, 亍은 부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계련부수를 彳으로 한정한다. ○계련부수 : 34彳 ·근거 : 『단주』의 "蒙彳"과 『설문』의 "从彳从亍."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34彳의 계련 횟수 : 2회(34彳→37行)	行 術 街 衢 衝 … (文12)	人之步趨也. 从彳从亍. 凡…. (行은 사람의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와 빨리 걷는 걸음걸이를 뜻한다. 彳{척}과 亍{촉}으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35廴	·37行에 대해 『段注』에서 "人之步趨也. 步, 行也. 趨, 走也. 二者, 一徐一疾, 皆謂之行, 統言之也."(步는 천천히 걷는다는 '行'의 뜻이며, 趨는 달린다는 '走'의 뜻이		

部首 순서	部首 (篆書) (楷書)	形相 義相	系聯 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천천히 가는 것이고 하나는 빨리 가는 것으로서 모두 行이라고 한 것은 합쳐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즉, 37行은 步와 趨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기에 34彳을 초회 계련 부수로 하는 35辵의 의미를 의미상 잇고 있다. ○계련부수 : 35辵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38	齒 {치} 齒	形相	27止	○『段注』: 仍蒙止而次之. (거듭 止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7止 · 근거 : 『단주』의 "蒙止"와 『설문』의 "止聲." · 38齒는 27止에서 聲符로 形相으로서 계련하고 있다.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 27止의 계련 횟수 : 8회(26走←27止→28癶→29步→30此→31正→33辵→38齒)	齒 齗 齔 齻 齜 … (文44)	口齗骨也. 象口齒之形, 止聲. 凡…. (齒는 잇몸에 붙어 있는 뼈이다. 입과 이빨의 모양을 상형하였다. 止가 발음이다. ….)
		義相	없음	· 37行과 38齒는 의미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즉, 이 齒 이전과 이후로 의미를 잇는 부수가 없는 義相으로서 단절이다.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39	牙 {아} 牙	形相	없음	○『段注』: 牙之形無所蒙, 而其爲物齒屬也, 故次於此. (牙의 형체는 잇는 바가 없으나, 사물은 齒의 소속이다. 그러므로 이 다음을 잇는다.) · 牙는 齒보다 크다. 즉, 어금니로 보아야 한다. 齒와 牙는 형체상 전혀 비슷하지만, 자형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形相으로서의 계련부수는 없지만, 義相으로는 대단히 근접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9牙를 38齒의 다음 순서로 배열하였을 것이다. · 이는 形相으로서는 이어지지 않는다. 즉 形相의 단절이다. 그러나 義相으로서는 38齒를 잇고 있다. ○계련부수 : 없음. · 근거 : 『단주』의 "牙之形無所蒙"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 38齒의 계련 횟수 : 初回	牙 猗 𤞷 (文3)	牡齒也. 象上下相錯之形. 凡…. (牙는 어금니이다. 위아래가 서로 엇물인 모양을 상형하였다. ….)
		義相	38齒	· 齒와 牙는 치아의 종류로서 의미상 서로 이어지고 있다. ○계련부수 : 38齒 ○계련방식 :(38齒의 의미를 잇는) 순차직렬식		
40	足 {족} 足	形相	27止	○『段注』: 仍蒙止而次之. (거듭 止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7止 · 근거 : 『단주』의 "蒙止"와 『설문』의 "从口止."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 27止의 계련 횟수 : 9회(26走←27止→28癶→29步→30此→31正→33辵→38齒→40足)	足 蹏 跟 踝 跖 … (文85)	人之足也. 在體下. 从口止. 凡…. (足은 사람의 발이다. 신체의 아래쪽에 있다. 口와 止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27止	· 40足은 앞 27止의 의미를 계속 잇고 있다. ○계련부수 : 27止		

部首 순서	部首 (篆書) (楷書)	形相 義相	系聯 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41	疋 {소} 疋	形相	27止	○『段注』: 仍蒙止而次之. (거듭 止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7止 ・근거 : 『단주』의 "蒙止"와 『설문』의 "上象腓腸, 下从止."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27止의 계련 횟수 : 10회(26走←27止→28癶→29步→30此→31正→33辵→38齒→40足→41疋)	疋 鹺 疑 (文3)	足也. 上象腓腸, 下从止. 弟子職曰, 問疋何止. 古文以為詩大雅字. 亦以為足字. 或曰胥字. 一曰疋, 記也. 凡…. (疋는 발이다. 위는 장딴지를 상형하였으며, 아래는 止로 구성되어 있다. 「弟子職」에서 "問疋何止['발을 어느 쪽으로 놓을요'라고 묻는다]"라고 했였다. 古文에서는 疋를 『詩·大雅』의 雅자로 여긴다. 또한 足으로도 여긴다. 혹은 胥라 보기도 한다. 일설에는 疋는 記의 뜻이라고도 한다. ….)
		義相	40足	・『설문』의 풀이처럼 이 41疋는 足의 의미이면서 장딴지(腓腸)와 止로 이루어져 있으니, 27止의 의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계련부수 : 40足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42	品 {품} 品	形相	22口	○『段注』: 遠蒙口而次之. (멀리 있는 口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2口 ・근거 : 『단주』의 "遠蒙口"와 『설문』의 "从三口."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22口의 계련 횟수 : 4회(22口→23凵→24吅→42品)	品 喦 喿 (文3)	衆庶也. 从三口. 凡…. (品은 많다는 뜻이다. 세 개의 口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22口	・부수 42品의 소속자는 모두 品, 喦, 喿 세 글자이다. "品, 衆庶", "喦, 多言也. 从品相連.", "喿, 鳥羣鳴也. 从品在木上."로서 각각 '衆庶'(사람이 많음), '多言'(많은 말), '鳥羣鳴'(여러 새의 울음)의 의미이기 때문에 모두 22口와 의미상 이어지고 있다. ○계련부수 : 22口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43	龠 {약} 龠	形相	42品	○『段注』: 蒙品而次之. (品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42品 ・근거 : 『단주』의 "蒙品"과 『설문』의 "三孔" 및 "从品侖."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42品의 계련 횟수 : 初回	龠 籥 龢 龢 龤 (文5)	樂之竹管, 三孔, 以和衆聲也. 从品侖. 侖, 理也. 凡…. (龠은 대나무 관을 사용하여 만든 악기이다. 구멍이 셋이며, 이로써 여러 소리를 조화롭게 한다. 品과 侖으로 구성되어 있
		義相	42品	・『설문』의 "从品侖."의 구조처럼 43龠은 여러 사람이 모인 많음과 그들이 연주하는 악기라는 의미로 이어지고 있다.		

部首 순서	部首 (篆書) (楷書)	形相 義相	系聯 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계련부수 : 42品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다. 侖은 理의 뜻이다. ….)
44	𠕋 {책} 冊	形相	43龠	○『段注』: 蒙龠而次之. (龠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段注』: 蒙龠从冊而次之.[9] (龠을 이어받고 冊을 따르며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43龠 · 근거 : 『단주』의 "蒙龠" · 篆書의 모양에서 43龠은 42品과 직렬적 혹은 순차적으로 品을 계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44𠕋과는 𠕋을 역순으로 계련하고 있다.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 43龠의 계련 횟수 : 初回	冊 嗣 扁 (文3)	符命也. 諸侯進受於王也. 象其札一長一短, 中有二編之形. 凡…. (冊은 왕이 제후들에게 命할 때 대나무 쪽에 새긴 문장, 즉 符節의 뜻이다. 제후가 왕에게 나아가 받는다. 그 札의 긴 것과 짧은 것과 가운데 두 번의 묶음이 있는 모양을 상형하였다. ….)
		義相	43龠	· 冊에 대한 『段注』에서 "簡冊, 竹爲之. 牘, 木爲之. 一冊不容則累冊爲之, 國史冊書蓋如是."(간책[簡冊]은 대나무로 만든다. 독[牘]은 나무로 만든다. 하나의 冊으로 다 수용하지 못하면 冊을 연결하여 만든다. 國史의 冊書는 다 이렇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면 冊은 곧 簡冊이다. · 다시 『段注』에서 "鄭引鉤命決云, 易詩書禮樂春秋. 策皆長二尺四寸, 孝經謙半之, 一尺二寸. 論語策八寸."(정현은 「구명결」을 인용하여 易·詩·書·禮·樂·春秋의 策은 모두 길이가 2척 4촌, 효경은 줄여서 그 반으로 1척 2촌, 논어는 策이 8촌이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면 44冊은 『易·詩·書·禮·樂·春秋』의 하나인 『樂』과 관련이 있다. · 결과적으로 44冊은 '簡冊'이며 동시에 『樂』이라 할 수 있다. ○계련부수 : 43龠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 小結

形相次는 앞 부수의 '형체'를 뒤 부수에게 전달하는 주요한 순서이며, 義相次는 앞 부수의 '의미'를 뒤 부수에게 전달하는 부수적인 방식이다. 形相次가 주된 원칙이고

8) 이 설명은 『설문해자』 八部의 소속자가 12개인가 13개인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계련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즉, 허신은 八部의 말미에 "文十二"라 하였으나, 단옥재는 이에 대해 "當云十三"이라 주석하고 있다. 그래서 고본에는 𠆢자가 있어서 13개라는 의미이다.

9) 이 논문에서는 두 판본의 『說文解字注』를 참조하고 있는데,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臺北), 中華民國72年9月), 王進祥 句讀의 『斷句套印本說文解字注』와 鳳凰出版社(南京, 2007年12月第1版), 許惟賢 整理의 『說文解字注』이다. 이 44冊에 대한 부분에서 『단주』 부분이 약간 다르다. 아래 부분이 許惟賢 整理 판본의 내용이다.

義相次는 보조적인 원칙인 이유는 540개 부수를 形相次만으로 연이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한 것이 義相次이기 때문이다. 義相次는 동시에 540개라는 많은 개수의 부수를 암기하기 쉽게 만드는 연상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形相次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득이한 한계를 극복하는 상호보완적인 수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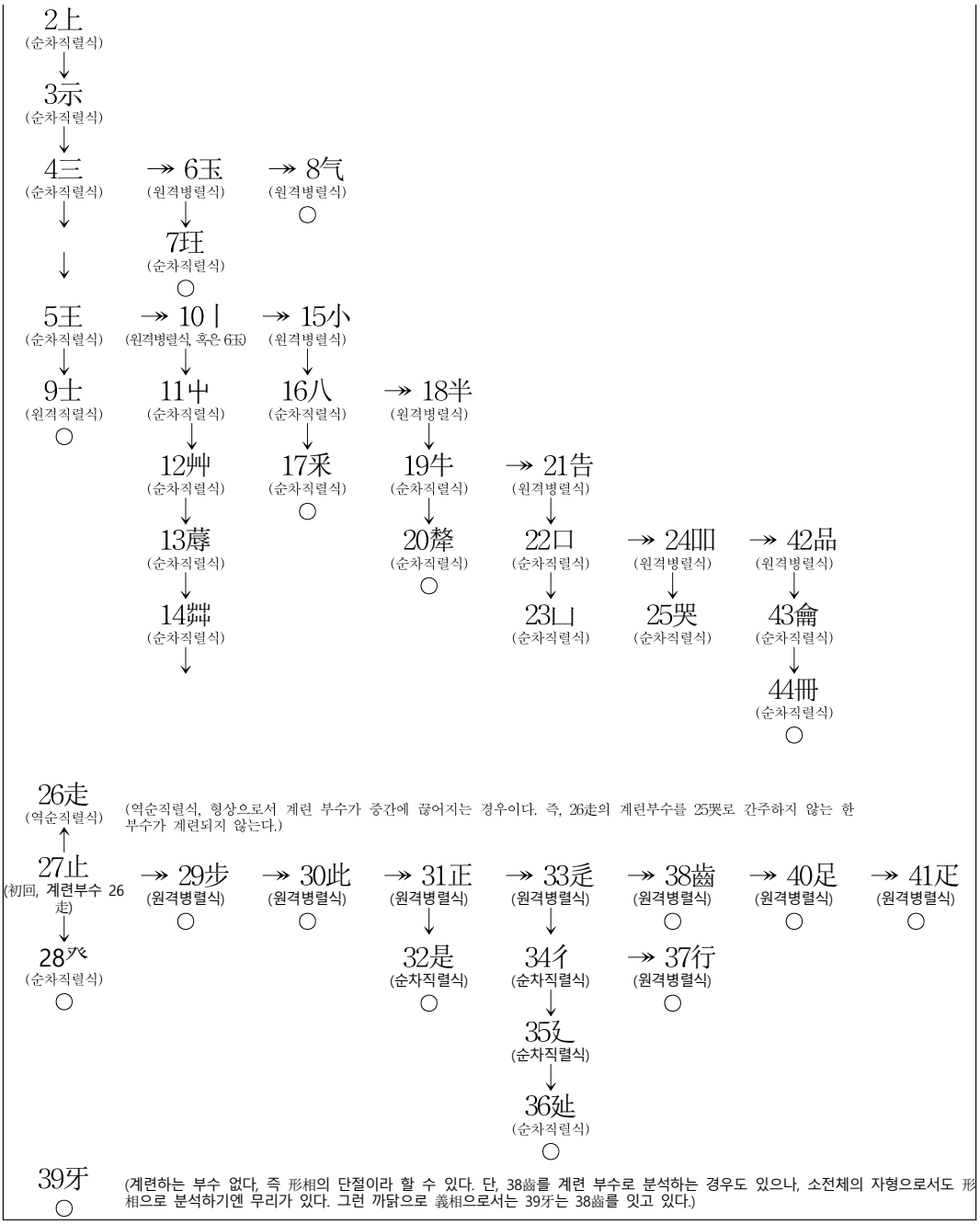
그러나 이 義相次가 반드시 직렬적 혹은 순차적인 선후관계만은 아니다. 다시 말해 원격병렬식으로 직전의 부수가 아닌 훨씬 앞에 있던 부수의 의미를 이어받는 방식으로 540개 부수를 잇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形相次라 할지라도 단순히 앞 부수의 형체가 뒤 부수에게 전달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마치 義相次처럼 훨씬 앞에 나왔던 부수를 잇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形相次에서도 직렬적 혹은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수가 있는가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부수를 잇는 부수가 동시에 존재한다.

특이한 점은 직렬식은 순차의 방식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지만, 의외로 역순의 직렬식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26走의 계련부수는 선행의 부수가 아닌 후행의 27止이다. 이 논문에서는 26走←27止로 표시하고 있다. 『段注』에도 “有形不相蒙者, 此是也.”(형체가 있으나 서로 이어받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설문』 부수표에 대한 『단주』에서 처음 보이는 풀이이다. 단옥재의 ‘有形不相蒙者’는 이 역순의 계련을 언급한 것이라 추측한다. 그 근거로서 27止에 대한 『단주』에서 “蒙走从止而次之.”(走가 止로 구성된 것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라고 한 것과 『설문』의 26走에 대한 “趨也. 从夭止. 夭者, 屈也.”(走는 빨리 달린다는 뜻이다. 夭와 止로 구성되어 있다. 夭는 구부러진다는 뜻이다.)라고 한 “从夭止.”이다. 『단주』와 『설문』 모두 이 26走의 계련 부수가 27止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역순의 직렬식이라 하 수 있다.

지난 82집 논문에서 분석한 1一부터 14㕒까지의 계련 횟수와 계련 방식은 다시 정비하여 앞 2장 연구방법의 ‘2)『說文解字』540部首의 形相·義相 系聯 考察(1)의 결과 요약’에서 정리하였다. 이어서 16八부터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권1」의 1一부터 14㕒 그리고 『설문』「권2」의 15小부터 44冊까지 30개 부수를 대상으로 한 形相의 계련 방식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一부터 44冊까지 하나의 표에 담는 이유는 부수의 계련 과정을 처음부터 이어서 보고자 함이다.

540亥
↓
1一
(순차직렬식)
↓



· 계련 부수가 없는 부수 :

- 39牙 : 形相으로서는 이어지지 않는다. 즉 形相의 단절이다. 그러나 義相으로서는 38齒를 잇고 있다.

· 순차직렬식 부수 :

- 1一→ 2上→ 3示→ 4三→ 5王→ 9士(원격직렬식)
- 6玉→7玨
- 10丨→ 11屮→ 12艸→ 13蓐→ 14茻 (이상『설문』「권1」)
- 15小→ 16八→ 17釆{변}[10]
- 18半→ 19牛→ 20犛{리}
- 21告→ 22口→ 23凵{감}
- 24囗(훤)→ 25哭
- 26走← 27止(역순)→ 28癶(계련부수는 27止) : 26走가 역순으로 27止를 계련하고 있는 특이한 계련이다.
- 31正→ 32是
- 33辵→ 34彳{척}→ 35廴{인}→ 36延{지}
- 42品→ 43龠→ 44冊

· 원격병렬식 부수 :
- 4三→ 6玉→ 8气
- 5王→ 10丨(이상『설문』「권1」)
- 5王→ 10丨→ 15小
- 16八→ 18半
- 19牛→ 21告
- 22口→ 24囗{훤}→ 42品
- 27止→ 29步→ 30此→ 31正→ 33辵→ 38齒→ 40足→ 41疋{소}
- 34彳{척}→ 37行

· 오직 (순차와 역순)직렬식으로만 계련하는 부수 : 1一, 2上, 3示, 7玨{각}, 11屮{철}, 12艸, 13蓐, 14茻, 17釆, 20犛{리}, 23凵{감}, 25哭, 26走, 28癶, 32是, 35廴{인}, 36延{지}, 42品, 43龠, 44冊

· 오직 원격병렬식으로만 계련하는 부수 : 29步, 30此, 37行, 38齒, 40足, 41疋{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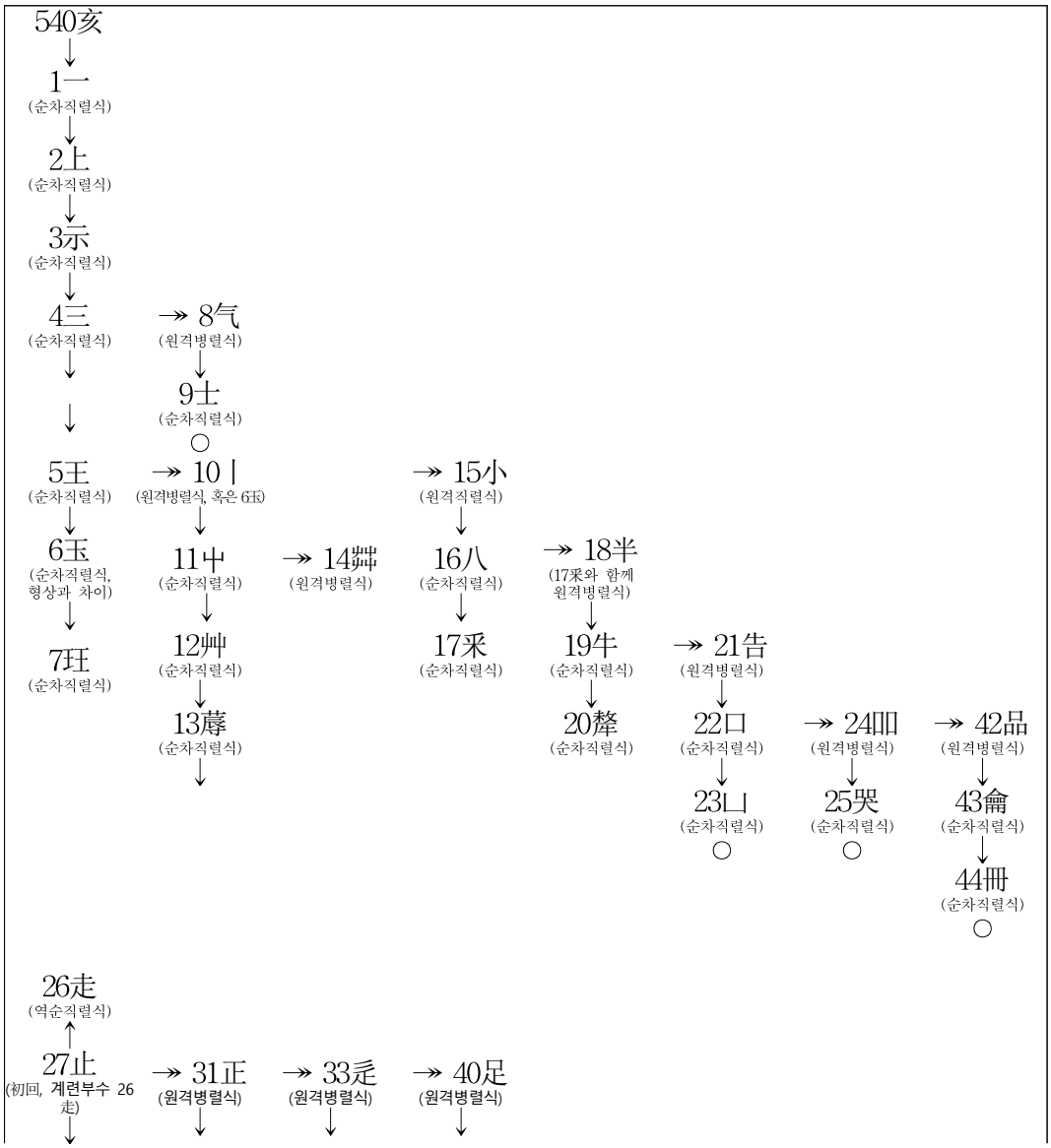
· 직렬식과 병렬식 공통으로 계련하는 부수 :
- 4三 : 5王의 순차직렬식이면서 동시에 6玉과 8气의 원격병렬식
- 5王 : 9士의 원격직렬식이면서 동시에 10丨, 15小의 원격병렬식
- 16八 : 17釆{변}의 순차직렬식이면서 동시에 18半의 원격병렬식
- 19牛 : 20犛{리}의 순차직렬식이면서 동시에 21告의 원격병렬식
- 22口 : 23凵의 순차직렬식이면서 동시에 24囗{훤}, 42品의 원격병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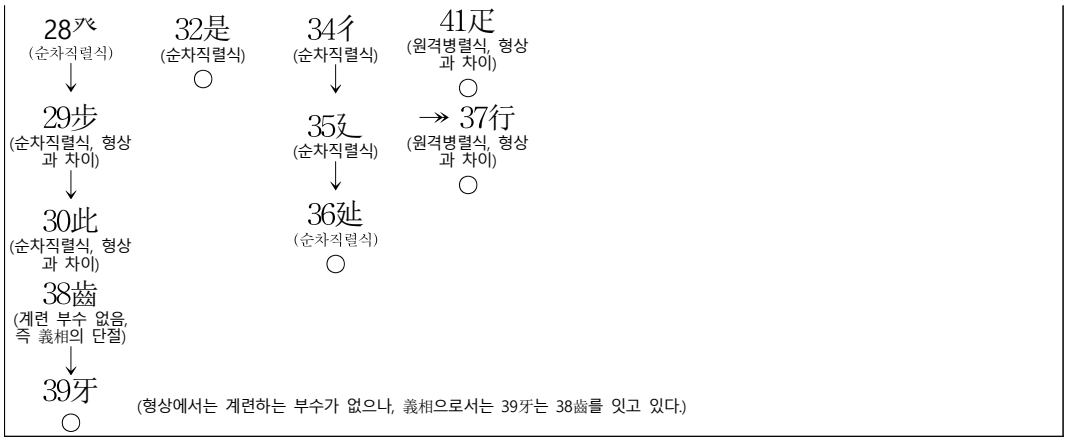
---

10) '17釆(변)'과 같이 비록 주관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다소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글자에 대해서는 꺽쇠 괄호([{}「」[]) 속에 한글음을 병기하였다.

- 19牛 : 20犛{리}의 순차직렬식이면서 동시에 21告의 원격병렬식
- 27止 : 26走의 원격직렬식이면서 동시에 29步→ 30此→ 31正→ 33辵→ 38齒→ 40足→ 41疋{소}의 원격병렬식
- 33辵 : 34彳{척}의 순차직렬식이면서 동시에 27止와 원격병렬식

『설문』「권1」의 1一부터 14㚒 그리고 『설문』「권2」의 15小부터 44冊까지 30개 부수를 대상으로 한 義相의 계련 방식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 형상과 차이가 있는 부수 :
- 29步 : 형상은 27止(원격병렬식)이나 의상은 28癶(순차직렬식)
- 30此 : 형상은 27止(원격병렬식)이나 의상은 29步(순차직렬식)
- 37行 : 형상은 34彳(원격병렬식)이나 의상은 35辶(원격병렬식)
- 38齒 : 형상은 27止(원격병렬식)이나 의상은 없음. 계련 부수 없다. 즉 義相의 단절이다.
- 41疋 : 형상은 27止(원격병렬식)이나 의상은 40足(순차직렬식)

이상 『설문』「권1」의 1一부터 14㞷 그리고 『설문』「권2」의 15小부터 44冊까지 30개 부수를 대상으로 형상과 의상을 분석하였다. 대단히 특이한 점은 형상과 의상이 단절되는 현상인데 38齒와 39牙이다. 38齒는 의상은 단절되지만 형상으로서는 27止를 원격병렬식으로 계련하고 있으며, 39牙는 형상은 단절되지만 의상으로서는 38齒를 원격병렬식으로 계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허신의 系聯에 형상과 의상 모두 완벽하지는 않으나, 다만 형상과 의상이 서로 보완하고 있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위의 부수 15小부터 44冊까지 義相과 形相을 모두 고려한 스토리를 구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 순서는 形相을 먼저 풀이하고 義相은 그 뒤에 풀이한다. 그 이유는 허신의 부수 배열은 기본적으로 형상에 있으며, 이를 통한 의상 즉 스토리를 구현하려 했다는 가정에 근거해서이다.

『설문』「권1」의 끝 11[屮]~14[㞷]

11[屮]~14[㞷] 초목의 싹이 새로 나오고(11[屮]), 그 싹이 무성해지면(12[艸]), 묵은

풀이 다시 살아난다.(13[蓐]) 이는 다시 모여 많은 풀이 되듯이 번성한다.(14[茻]) (82집 논문의 마지막 부수)

『설문』「권2」의 15小~44冊

15 [小 작을 소] 物之微也. 从八, 丨見而分之. (『설문』에서의 풀이, 이하 동일)

形相 : (위 아래로 관통함을 그린 丨으로써) 나눈다는 뜻의 (八)이 의미부이며, (위 14茻 잡풀 우거질 망의)많은 풀들이 나뉘었음을 보였다. [계련 : 10丨]

義相 : (그 많은 풀은) 작은 물체로 나누어진다. [계련 : 10丨]

16 [八 여덟 팔] 別也. 象分別相背之形.

형상 : (위 아래로 관통함을 그린 丨이 빠지면) 서로 반대로 놓인 모습을 그렸다. [계련 : 15小]

의상 : (그것이) 나누어지면 서로 반대가 된다. [계련 : 15小]

17 [釆 분별할 변] 辨別也. 象獸指爪分別也.

형상 : 허신은 소전체에 근거해서 八(八)과 釆(釆) 모두 分別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계련 : 16八]

의상 : (서로 나누어지면) 짐승의 발자국이 서로 구분되는 것처럼 분별된다. [계련 : 16八]

18 [半 반 반] 物中分也. 从八从牛. 牛為物大, 可以分也.

형상 : 소는 몸집이 큰 동물이기에 가운데를 갈라 나눌 수 있다. 八과 牛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16八]

의상 : 사물의 가운데를 나누는데, [계련 : 16八 혹은 17釆]

19 [牛 소 우] 事也. 理也. 像角頭三封尾之形.

형상 : (사물의 이치에 있어서) 반으로 나누는 것의 예가 소다. 소전체의 半(半) 안에는 牛(牛)가 있다. [계련 : 18半]

의상 : (그 예가) 소의 경우이다. [계련 : 18半]

20 [犛 야크 리] 西南夷長髦牛也. 从牛氂聲.

형상 : 그 예로 犛가 있는데, 牛는 의미부이고, 氂{쪼갤 리}가 소리부로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19牛]

의상 : 서남 이민족 지역의 털이 긴 소가 바로 그 예이다. [계련 : 19牛]

21 [告 알릴 고] 牛觸人, 角箸橫木, 所以告人也. 从口从牛. 易曰, 僮牛之告.

형상 : 牛와 口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19牛]

의상 : 소의 불에 가로 나무를 대서 사람들에게 소의 뿔에 사람이 다치는 위험

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계련 : 19牛]

● '나누다, 분리하다'로서의 부수의 역할은 15小부터 시작하여 21告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22口부터 새로운 부수의 시작, 즉 '입(口)의 역할이 시작되어 24吅 부르짖을 훤까지 이어진다. 義相도 마찬가지이다. 단, 이 구조는 엄격하지 않은데, 42[品]은 사람의 입(口)과 연관된 부수이다.

22 [口 입 구] 人所以言食也. 象形.

형상 : 告(告)에서 口(口)를 잇는다. [계련 : 21告]

의상 : (소의 의미부였던) 입은 말을 하고 먹는 사람의 기관이다.[계련 : 21告]

23 [凵 입 벌릴 감] 張口也. 象形.

형상 : 口의 다른 모양이다. [계련 : 22口]

의상 : 입의 여러 모양과 다양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입을 벌린 모습이다. [계련 : 22口]

24 [吅 부르짖을 훤] 驚嘩也. 从二口.

형상 : 두 개의 口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2口]

의상 : 입의 역할 가운데 하나로서 놀라는 입의 모양이다. [계련 : 22口]

25 [哭 울 곡] 哀聲也. 从吅, 獄省聲.

형상 : 吅이 의미부이고, 獄의 생략된 모습이 소리부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4吅]

의상 : 입의 역할 가운데 하나로서 슬퍼 우는 모습과 소리이며, 너무나 슬픈 나머지 이성을 상실한 개(犬)처럼 슬피 울부짖는 것이다. [계련 : 24吅]

● 22[口]부터 25[哭]으로서 부수로서 '입(口)'의 역할은 끝나고, 다음의 26走부터는 새로운 부수의 시작, 즉 사람의 '다리(止)'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義相도 마찬가지이다. 단, 42[品]은 齒牙와 관련이 있긴 하나 '입(口)'과 무관하지 않다.

26 [走 달릴 주] 趨也. 从夭止. 夭者, 屈也.

형상 : 夭와 止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7止]

의상 : (夭처럼 팔을 흔들며) 큰 걸음으로 달린다. [계련 : 27止]

27 [止 발 지] 下基也. 象艸木出有址, 故以止為足.

형상 : 止는 발(足)이다.(故以止為足) [계련 : 26走]

의상 : 초목이 땅을 뚫고 자라면서 땅에 기초를 두는 것은 발(足)과 같다. [계련 : 26走]

28 [癶 등질 발] 足刺癶也. 从止丄.

형상 : 두 발이 서로 엇갈려 등지고 있다.(足刺癶) 止와 이 글자가 좌우로 뒤집어진 丄로 이루어져 있다. 止와 丄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7止]

의상 : 두 발이 엇갈려 등지고 있다. [계련 : 27止]

29 [步 걸음 보] 行也. 从止丄相背.

형상 : 止와 丄이 서로 등지고 있는 모습이다. [계련 : 27止]

의상 : (엇갈려 등지고 있는 발이) 걸어가고 있다. [계련 : 28癶]

30 [此 이 차] 止也. 从止从匕. 匕, 相比次也.

형상 : 止와 匕(비)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7止]

의상 : 匕(비)가 서로 나란히 순서를 정하는 모양(相比次)인 것처럼 발이 그치거나 가고 있다. [계련 : 29步]

31 [正 바를 정] 是也. 从一. 一以止.

형상 : 가로획(一)이 발(止) 위에 놓인 모습이다. [계련 : 27止]

의상 : (此처럼 나란히 순서를 정하는 것은) 옳다. [계련 : 27止]

32 [是 옳을 시] 直也. 从日正.

형상 : 日과 正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31正]

의상 : 是가 日과 正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해(日)처럼 올바른 일이다. [계련 : 31正]

33 [辵 쉬엄쉬엄 갈 찰] 乍行乍止也. 从彳从止.

형상 : 彳{척}과 止{지}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7止]

의상 : (걸음은) 잠시 가다가 잠시 멈추기도 한다. [계련 : 27止]

34 [彳 조금 걸을 척] 小步也. 象人脛三屬相連也.

형상 : 허벅지와 무릎과 종아리 셋이 연결된 사람의 다리 모양이다. 象人脛三屬相連 [계련 : 33辵]

의상 : (걸음은) 작은 걸음으로 걷기도 한다. [계련 : 33辵]

35 [廴 길게 걸을 인] 長行也. 从彳引之.

형상 : 彳{척}을 길게 늘어트린 모습(彳引之)이다. [계련 : 34彳]

의상 : (걸음은) 멀리 가기도 한다. [계련 : 34彳]

36 [延 걸을 천] 安步延延也. 从廴从止.

형상 : 廴{인}과 止{지}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35廴]

의상 : (延은) 천천히 느긋하게 걷다는 뜻이다. 되어 있다. ….)[계련 : 35廴]

37 [行 갈 행] 人之步趨也. 从彳从亍.

형상 : 彳과 亍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34彳]

의상 :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와 빨리 걷는 걸음걸이(人之步趨)처럼 사람은 갖가지 걸음걸이가 있다. [계련 : 35廴]

● 26[走]부터 37[行]까지 사람의 '다리(止)'의 역할이 일단락된다. 다음의 38齒부터는 사람의 '齒牙'와 관련된 부수의 시작이다. 하지만, 앞의 '입'과 '다리'처럼 이 구조는 엄격하지 않은데 40[足]과 41[疋]은 사람의 '다리(止)'이며, 42[品]은 사람의 입(口)과 연관된 부수이다.

38 [齒 이 치] 口斷骨也. 象口齒之形, 止聲.
형상 : 입과 이빨의 모습을 그렸다. 止가 소리부이다. [계련 : 27止]
의상 : 의상으로서는 이 齒 전후로 의미를 잇는 부수가 없다. [계련 : 없음]
39 [牙 어금니 아] 牡齒也. 象上下相錯之形.
형상 : 형상으로서 이 牙 전후로 형체를 잇는 부수가 없다. [계련 : 없음]
의상 : 어금니이다. 아래윗니가 서로 엇물려 있다. [계련 : 38齒]
40 [足 발 족] 人之足也. 在體下. 从口止.
형상 : 口와 止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7止]
의상 : 사람의 발이다. [계련 : 27止]
41 [疋 필 필, 발 소] 足也. 上象腓腸, 下从止. 弟子職曰, 問疋何止. 古文以為詩大雅字. 亦以為足字. 或曰胥字. 一曰疋, 記也.
형상 : 윗 부분은 장딴지(腓腸)를, 아랫부분은 止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7止]
의상 : 사람의 발(40[足])에서 윗부분이다. [계련 : 40足]
42 [品 물건 품] 衆庶也. 从三口.
형상 : 세 개의 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2口]
의상 : 입이 많다. [계련 : 22口]
43 [龠 피리 약] 樂之竹管, 三孔, 以和衆聲也. 从品侖. 侖, 理也.
형상 : 品이 세 개의 입으로 구성된 것처럼 이 악기는 세 개의 구멍(三孔)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42品]
의상 : 입은 악기처럼 여러 소리를 조화(和衆聲)시킨다. [계련 : 42品]
44 [冊 책 책] 符命也. 諸侯進受於王也. 象其札一長一短, 中有二編之形.
형상 :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조각(一長一短)과 가운데의 두 가닥의 줄을 이은 모습(中有二編)이다. [계련 : 43龠]
의상 : 왕이 제후들에게 명할 때 새긴 문장 즉 부절은 마치 악기의 모양과 같다. [계련 : 43龠]

【참고문헌】

<단행본>

[漢]許愼 撰, [淸]段玉裁 注, 王進祥 句讀, 王秀雲 音注, 『斷句套印本說文解字注』(四部叢刊 / 經部·小學類 - 說文之學),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09.

[漢]許愼 撰, [淸]段玉裁 注, 許惟賢 整理, 『說文解字注』, 南京: 鳳凰出版社, 2007.12.

염정삼, 『說文解字注 部首字 譯解』,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湯可敬 撰,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出版發行, 2002.04.

허 신 저, 하영삼 역주, 『완역 설문해자』, 도서출판3, 2022.

<논문>

진광호, 「『說文解字』 無屬部字 部首 分析」, 『중국학』, 제64집, 대한중국학회, 2018.

郭 帅, 「『说文』部首次第考」, 黑龙江大学 硕士学位论文, 2017.

黄朴民, 「两汉谶纬简论」, 『清华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3期(第23卷), 清华大学学报, 2008.

王 晴, 「『说文解字』五百四十部首研究」, 江西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9.

袁 园, 「『说文解字』部首次第研究」, 青海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3.

刘志军, 「『说文解字注』关于『说文』字叙和部叙的发明」, 吉首大学 硕士学位论文, 2011.

郭 帅, 「『說文』部首系联塬则平议」, 『汉语史学报』, 2020.

姬 娜, 「析『说文解字』部首的归纳塬则」, 『新疆石油教育学院学报』, 2004.

胡达超, 「『说文解字』部首体例研究」, 『现代经济信息』, 2009.

缪九花, 「许慎『说文解字』部首排列系联方式新探」, 『南昌大学学报』, 2010.

<기타자료>

廉丁三, 「동아시아 문명의 소통과 중국 문자」,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說文解字』,「卷二·上/下」, 部首, 據形系聯, 共理相貫, 形相次, 義相次
	영문	『*Shuowen Jiezi*』,「*Volume 2, Part 1/2*」, Radical(Chinese characters), The principle of arranging radicals based on their forms, The principle of making the meanings, Arrangement based on forms, Arrangement based on meaning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pe and Meaning in 540 Radicals of『*Shuowen Jiezi*』
: Focus on 30 Radicals of「*Volume 2, Part 1/2*」

Kim Tai-Wan

The Shuowen Jiezi(『說文解字』) is a systematic self-exposition of Chinese characters, and can be considered one of the earliest works of its kind. Notably, it developed and applied the concept of radicals(部首) to facilitate the search for specific characters. However, the significant number of 540 radicals, established based on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음양오행), unintentionally caused inconvenience in searching. To address this, Xu-shen(허신) organized the radicals using the order of their visual forms(形相) and their meanings(義相).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validate these correlations of visual forms and meanings. While the previous study focused on 14 radicals from Volume 1 of the Shuowen Jiezi, this paper examines the correlations of 30 radicals from '*Volume 2, Part 1/2*, spanning from Radical 15(小) to Radical 44(冊). Specifically, this paper is the second one following the previous study. The research has uncovered several distinctive findings, all of which are elaborated in detail in the main body. I intend to examine the correlations of all 540 radicals from the survey participants in the future.

저 자	김태완 / 金泰完 / Kim, Tai-Wan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8.10.	심 사 일	2023.09.03.	게재확정일	2023.09.06.